



# 어제는 27°C였는데... 하루 사이 기온 '뚝'

### 제주 최고기온 25.8°C로 11월 기준 역대 5위 기록 편현상에 월정리 27.6°C... 20일부터 7~10°C 낮아져 강한 바람 불면서 항공기 운항 차질·바닷길도 막혀

제주지역 기온이 하루 사이 10°C가  
떨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유의  
해야 한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  
날 제주의 최고기온은 25.8°C로 1923  
년 기상 관측 이래 11월 기준으로 역  
대 다섯 번째로 높았다. 최고 값은 이  
틀 전인 지난 17일 기록한 26.7°C다.

공식 관측자료는 아니지만 이날  
제주시 월정리의 최고기온은 27.6°C  
까지 치솟아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다. 이밖에 제주공항 25.2°C, 제주  
시 구좌읍 26.2°C, 대흘리 25.2°C 등  
제주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25°C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였다. 반면 서  
귀포 21.9°C, 강정 21.3°C 중문 21.8  
°C, 남원 22.5°C 남부 지역 기온은  
북·동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따뜻한 남  
서풍이 제주 지방에 지속적으로 유입  
되다보니 평년보다 높게 기온이 형성  
됐다"면서 "특히 따뜻한 남서풍이 한  
라산을 통과하는 도중 편현상이 발생  
하면서 한라산 북·동쪽 기온이 남쪽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온화한 기온과 달리 바람은 거세  
게 불었다.

이날 윗세오름에는 순간최대풍속  
초속 29.0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  
쳤다. 또 삼각봉(초속 26.3m), 여러

목(초속 23.3m) 등 제주산간을 포  
합한 성산 수산(초속 21.4m), 세별  
오름(20.4m), 제주공항(20.5m) 등  
나머지 지역에서도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이틀째 항공  
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  
르면 제주공항에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되면서 이날 오후 6시 기준 항공  
기 31편이 결항됐다.

이날 오전 8시 제주에서 부산 김  
해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522  
편과 오전 8시 25분 진에어 LJ502편  
이 결항하는 등 출발 17편, 도착 14  
편이 운항을 취소했으며 항공기 85  
편(출발 60편, 도착 25편)이 운항  
지연됐다.

또한 제주 전해상에 내려진 풍랑  
주의보로 인해 바닷길도 막히며 제  
주도 기점 여객선 9개 항로 15척 중  
5개 항로 6척만 운항했다.

기상청은 20일부터 바람이 잦아들  
지만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찬공기가

제주에 유입돼 하루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20일 아침 최저기온 13°C, 낮 최고  
기온은 14~18°C로 전날보다 7~10°C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튿날인 21  
일에는 오전 한 때 기온이 더 떨어지  
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7~10°C에 머  
물 것으로 예측됐지만 낮부터 기온  
이 올라 낮 최고기온은 18~19°C로  
예상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21일 오전을 제  
외하고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지만  
기온 변화가 심한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김현석기자



우산 쓴 시민들 비가 내린 19일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 일대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 경찰 또 직장내 성희롱 의혹... 감찰 착수

### 제주청, A경위 직위해제 등 올들어 두 번째... 전수조사도

제주에서 간부급 경찰관에 의한 직  
장 내 성희롱 문제가 또 불거져 감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태가 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19일 본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서귀포경  
찰서 소속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A경위는 최근 술자리에서 부하 직

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A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또 A  
경위를 원래 근무 부서가 아닌 경무  
과에 대기발령해 피해 직원과 분리  
조치했다.

통상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장, 경  
사, 경위 등 경감 이하 직급에 대한  
감찰 조사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한  
관서가 하지만, 성 또는 갑질 관련  
비위 의혹은 상급 기관인 지방청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희롱 의혹이 발

생한 시기, 장소 등의 구체적인 경위  
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의 성희롱 문제는 올들  
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 9월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B(56)경위를  
해임했다.

B경위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모 파  
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초, 부  
하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문제가 불  
거져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B경위

를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로 발령  
한 뒤 감찰 조사를 벌인 끝에 해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해임은 국가공  
무원법상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B경위는 해임 처분에 불복  
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서귀포경찰서는 소속 경찰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잇따라 터지  
자 유사 사태가 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  
를 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관계  
자는 "감찰과 상관 없이 고유 업무  
수행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내 3개 경찰  
서 중 성희롱 전수조사는 현재 서귀  
포경찰서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성평등 문화 제주에 깃든다 (5) 제주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 "디지털 성범죄 근절로 여성친화도시를"

### 최근 5년간 총 223건 발생 경찰 특별수사단 구성 단속

### 여성안심귀갓길·캠페인 등 민관 합동 예방 활동 강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사  
건의 공통점은 '디지털 성범죄'다. 두  
사건은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  
배포했다는 것에서 전국적으로 공분  
을 사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적인 의미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몸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유포  
협박·장·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뜻한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불법 촬영된 성범죄물을 무한대의  
디지털 공간에서 거래하고 공유하며  
피해자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주는 악질 범죄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지는 등 정보통신 기  
술의 발달로 정보공유 방법들도 다  
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악  
영향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 성범죄를 꼽을 수 있는  
데, 제주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  
는 범죄이기도 하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  
근 5년(2015~2019년)간 제주에서 인  
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  
레그램 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는 모  
두 22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2건, 2016  
년 22건, 2017년 15건, 2018년 35건,  
지난해 59건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도 매년 수십여건  
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  
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3월  
부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실형, 수사지도·지원, 국  
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등 9개 담당 부서로 구성됐다. 특별  
수사단은 연말까지 '사이버성폭력 4  
대 유포망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경  
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단속  
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디지털 성범죄  
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  
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여  
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16개 기  
관),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와  
협력해 지난 5월을 디지털 성범죄 예  
방을 위한 집중 릴레이 캠페인 기간  
으로 정했다. 당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뤄진 캠페  
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  
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 확산과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자생단체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제주시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안전한 연동,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제주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에 공  
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제주도와 자  
치경찰단 연동자치지구대·연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경이 협력  
해 여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용접 부주의 화재 잇따라

최근 제주지역에서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  
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용접 부주의  
로 3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건, 2019년

7건, 올해 17건 등으로 올들어 큰 폭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대정농공단지의 한 공장 창  
고시설 옥상에서 불이 나 1788만원  
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지난 13일과  
16일에도 서귀포시 소재 신축공사장  
과 철거 건물에서 용접 또는 절단 작  
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페르카 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추주는 역할, 양분유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필리핀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알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원을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 "이노페스" 탄생  
히트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생산성 증대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과
히트류	염류중화·토양개량·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식산	유기물 대체·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백합추출물	토양해중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징**  
☆가스피해가 없다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히트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업·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